우암학원 창학69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19호 1판 (음력 5월 5일) 2019년 6월 7일 금요일

광주 상공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 쇼'

비가 오는 6일 오후 광주의 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형형색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내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리는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광주·전남대회에 참가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공항 주변 '항공특화 산단' 들어선다

국토부, MRO 산단 확정 2021년까지 367억 투입
전남도 2전3기 유치…항공 정비·운항 서비스 가능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와 운항 서비스가 가능한 항공특화(MRO)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무안군이 그동안 항공특화산단 지정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남도내 산단 미분양 문제를 이유로 2차례나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무안 망운면 일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34만9000㎡(10만6000평) 부지에 367억원을 들여 항공 정비창, 항공물류, 운항서비스 등 항공 첨단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또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 3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산단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지난해 두 차례 산업단지를 지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리투아니아 항공정비 업체인 에프엘 테크닉스(FL Technics)사와 입주의향(MOA) 협약을 체결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도 항공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항공기정보서비스, 기내식업체와도 협약을 체결, 100% 입주 업체를 확보하면서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26일 '무안군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을 항공·물류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관점에서 국토부가 조건으로 내건 민간기업과의 MOA(투자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남도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해외에 위탁 점검·정비를 위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공정비시설이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설 경우 시간적 문제와 수입대체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무안국제공항 역시 다른 공항에 비해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개 국제노선을 주 54회 운행했다. 이용객은 54만명이었다. 올해는 국제선 추가 유치를 통해 100만명을 넘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접 지역에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항공기 운항 안전,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3000여 개의 직·간접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 전남도 건설도시과장은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주도할 미래전략산업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남 사천 MRO산단 등과 차별화되도록 해 큰 도약을 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무안공항 진입도로(연장 3.61km, 도비 881억원)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400m)도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요란한 비 그치면 … 서늘하고 맑은 날씨

광주·전남지역에 내리던 강한 비바람이 7일 오후부터 그치고 주말내 나들이 가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해안부터 그치고 이후 주말내 맑은날이 되겠다"고 6일 예보했다.

6일 오후 2시를 기해 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서해 전 해상에 걸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번에 발효된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는 7일 밤 늦게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이날 광주, 나주,영암, 흑산도, 홍도, 무안, 신안, 목포, 영광, 함평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총 강수량은 50~100㎜로 예상되고, 많은 곳은 150㎜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7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9도, 전남 17~20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2도, 전남 21~24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7도·전남 14~18도로 평년(광주 17.1도, 전남 15.3~17.6도)과 비슷한 수준이며, 낮 최고기온 역시 광주 28도·전남 25~29도로 평년(광주 27.4도, 전남 23.9~26.2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관계자는 "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7일 새벽에 기상조(저기압이나 고기압이 통과할 때 해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까지 더해져 만조시에 파도가 높아 해안저지대에는 침수 피해도 우려되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어"

문대통령 현충일 추모사…"기득권 매달리면 진짜 아니다"

광주시, 광주공원 현충탑서
전남도, 목포서 추념식 개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관련기사 3·4면〉

올해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야지도부를 비롯한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사이렌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가 담겼다. 추모 과정에서는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훗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등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 도중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면서 "(유족들에게)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저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눠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도 각각 광주공원 현충탑과 목포시 부흥산 현충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광주 추념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화와 분향,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 추모 헌시, 추모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26명(독립유공자 3, 공상군경 2, 참전유공자 21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도 전수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의원, 이연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도지부장을 비롯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 김종식 목포시장, 군인, 유족, 주민 등 500명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아 납치신고 했는데 수사종결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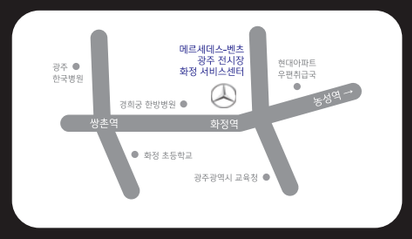
굿모닝 예향-일상에 문화 쉼표 ▶18·19면

KIA, 양현종 호투 박찬호 맹타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_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